

주간 이슈 리포트

72 호

2005년 3월 첫째주(2/28 ~ 3/5)

◎ 주요내용

- | | |
|------------|--------------------|
| - 세상돋보기: | 대통령의 2주년 국정연설 '유감' |
| - 노동자 세상: | 삼성회장님은 스키탈때마다 뉴스 |
| - 통신정책: | '와이브로' 활성화 의무 |
| - 정자동 6층에서 | 잠없는 나라 |
| - 만화방 | 시사만화 |



대통령의 2주년 국정연설 ‘유감’

지난 대통령의 2주년 국정연설에서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유감스럽다. 여론의 장을 지배하는 사회적 힘의 균형에서 경제계가 세지만, 앞으로 5년 동안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

대통령 취임을 앞둔 노무현 당선자가 오전에 한국노총을, 오후에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보라. 2년이 흐른 오늘, 언제 그런 소리가 있었나 싶지 않은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우향우'로 줄달음질 쳤다. 2년이 흐른 오늘, 스스로 경계했음에도 "사회적 역학관계상 역대 대통령들처럼 노동과 서민에 대한 처음 관심이 멀어"지고 있지 않은가. 물론, 노 대통령도 할 말이 있을 수 있다. 두 노총을 방문한 그 자리에서 '투쟁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보라. 누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있는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손석춘기자의 칼럼을 옮겨적는다.

“무작정 노동자만 나쁘다고 하시니 이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갇힌 LG정유 노동조합 김정곤 전 위원장의 딸 지은(15)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다. 기실 LG노조의 파업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인력 증원을 위한 신규 채용',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기금 출연'에서 나타나듯이, 대기업 노동자의 이기주의로 매도할 성격이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경영진은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를 대량학살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한국방송(KBS 2TV)과 인터뷰한 노동자들까지 해고했다. 짤막한 인터뷰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라며 노동자의 '목'을 치는 경영진의 서슬,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 참여 민주주의의 현주소다.

'참여민주주의'의 현실 착각하지 말아야

비단 LG정유만이 아니다. 순이익 '100억 달러 클럽'에 들어갔다며 부자신문이 대서특필한 삼성전자에서 벌어지는 원시적 인권유린을 보라. 초일류기업의 정규직 노동자가 민주공화국에서 대낮에 당하는 인권 유린은 곧장 비정규직으로 이어진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곰비임비 자행되는 폭력적 탄압은 지금 이 순간도 '진행형'이다.

하지만 보라.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노사관계의 민주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과

거보다 '수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 문제와 연결 지어 사고한다. 왜 그럴까. 김지은의 표현을 빌리면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이다.

명토박아두자. 한국의 노동자 상황은 정규직·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하향화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이 제시한 통계가 명확하게 입증해준다.

전체 취업자 대비 임금노동자 비중은 1998년 61.7%에서 꾸준히 늘어나 65.1%이다. 그런데 요소국민소득(노동소득+사업소득+자산소득) 대비 노동소득 비중인 노동소득 분배율은 1996년 63.4%를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1997년 구제금융체제로 들어선 뒤 비정규직이 급증한 사실에 비추어볼 대목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03년에 59.7%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자 비중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노동자 몫은 거꾸로 줄어들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 수치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 자신의 몫을 불사를 만큼 노동상황이 열악한 일차적이고 근본적 원인은 자신의 몫을 정규직에 잃었기 때문이 아니다. 자본소득에 빼앗겼기 때문이다.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은 사회 전반의 부익부빈익빈으로 이어질게 필연이다. 실제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 냉철하게 훑아볼 때다. 100대 대기업의 지난해 순이익은 모두 47조원에 이른다. 수출 또한 31%나 성장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소득은 물가상승률에 밀돌지만 기업소득은 38.7%나 늘었다. 분배정책이 없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붕괴되고 그 결과로 자영업자는 물론, 중소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천문학적 순이익을 내는 '초일류 기업'은 이른바 '구조 조정'에 살천스레 나서고, 언죽번죽 '희망퇴직'을 매수하거나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비정규직 몫, 정규직 아닌 자본이 빼앗겼다

과연 그래도 되는 걸까.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문화·관광·레저 서비스업'의 언급만 있을 뿐, '사회적 일자리'에 분명한 의지가 보이지 않은 것도 유감이다.

구조적인 실업문제를 풀어가려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노동정책이 있다. 대통령의 오해와 달리 민주노총은 오래 전부터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제안해왔다. 착각하지 말 일이다. 대화와 타협을 누가 거부하고 있는가.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번복 소동'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노동계가 아니라 노동부와 열린우리당이다.

아버지를 감옥에 빼앗긴 소녀는 편지의 끝자락에서 꿈을 밝혔다. "저에게 꿈이 있다면 노동자를 죽이지 않는 이 사회의 빛나는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꿈, 그 꿈에 답할 사람은 누구일까.

삼성회장님은 스키 탈 때마다 뉴스, 그러나...

삼성그룹으로부터 교수가 사찰 당해도 노동자가 사찰 당해도 거의 뉴스로 취급하지 않는 신문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다. 심지어 한국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사찰 당해도 결코 삼성그룹과 연결시키지 않고 단지 '제일기획'만 부각시키는 신문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다. 엄격한 뉴스가치를 따지는 듯 보이는 이들 신문이지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동정기사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서 보도한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스키를 탔다하면 '무조건' 뉴스꺼리가 되고 반드시 보도된다. 그간 이 회장이 스키를 배우고 스키장에 갈 때마다 보도한 조선과 동아일보의 보도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조선과 동아의 기사가치 판단 기준의 속셈을 살펴보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건희와 스키'는 반드시 이 기사로 다룬다. 한테 기사를 보면 '보도자료'임이 확연히 드러나는데도 마치 직접 현장에서 취재한 것처럼 독자들을 속인다. 1년여 전인 2003년 12월18일자 조선과 동아는 토씨까지 빼다 박은 기사로 이 회장의 동정을 사진까지 넣어 보도했다. 지난 2003년 12월18일자 조선과 동아의 기사다.

이건희 회장 "스키가 이렇게 재밌나" [조선일보] 2003-12-18

이 회장이 스키를 처음 배운 것은 지난 3월. 당시 휘닉스파크에서 열흘 정도 머무르면서 국가대표 출신의 전문강사를 통해 스키를 배웠다고 한다. 현재 실력은 S자 곡선을 도는 초보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키를 배운 뒤 이 회장은 주변에 "이렇게 재미난 운동을 왜 젊었을 때 모르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건희회장 "스키에 푹 빠졌어요" [동아일보] 2003-12-18

이 회장이 스키를 처음 배운 것은 3월. 당시 휘닉스파크에서 열흘 정도 머무르면서 국가대표 출신의 전문 강사에게 스키를 배웠다. 현재 실력은 S자 곡선을 도는 초보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스키를 배운 뒤 "이렇게 재미있는 운동을 왜 젊었을 때 배우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거의 똑같다. 조선의 "스키를 배웠다고 한다"와 동아의 "스키를 배웠다"의 차이, 조선은 "스키를 배운 뒤 이 회장은..."이고 동아는 "이 회장은 스키를 배운 뒤..."로 도치법 적용 유무의 차이, 조선은 "이렇게 재미난 운동"이고 동아는 "이렇게 재미있는 운동"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1월31일자에서 또 다시 이건희 회장의 '스키 나들이'가 언론을 탄다.

또 조선과 동아일보다.

이건희 회장 '스키 스킨십'... 삼성 사장단과 주말 행사 [동아일보] 2005-01-31

삼성전자 사장단, 눈발서 뿔군 사연 [조선일보] 2005-01-31

한데 동아일보가 이번에는 대체로 일정만 간단히 소개한 반면에, 조선일보는 일제시절 총독부를 향해서 보였던 비굴한 아부 근성이 전통인 듯 이건희를 향해서도 거의 찬양수준의 기사를 선보인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50세를 넘긴 나이지만, 도전 정신으로 뚝뚝 뚫쳐 있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이 회장의 스키경영 철학을 몸소 실천하려는 듯했다.... 이 회장은 스키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사장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강습 받도록 한 배려'라는 게 비서팀 설명이다. 보광 휘닉스파크 관계자들은 "며칠 전부터 이 회장이 스키장에 머물렀고, 부인 홍라희씨도 함께 있다"면서 "이 회장의 스키 실력은 초급과 중급의 중간 정도지만, 실력이 꽤 빨리 늘어난 편"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이것은 약과다. 아직 스키장에 가지도 않은 지난 24일 오전에 한국경제신문이 '이건희와 스키'에 대해서 보도를 하자마자 조선일보 인터넷판은 이러한 기사를 만들어 보도했다. 거의 교회당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는 소리에 버금간다.

이건희 회장 '스키경영' 화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60넘어 스키 배웠다"

입력 : 2005.01.24 17:39 07'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스키를 60세가 넘어 배웠다. 나이 60세면 스키를 하다가도 중단한다는 나이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재계에서는 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63)의 '스키경영'이 더욱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스키를 타기 시작한 이건희 회장이 새해 벽두부터 스키장에서 '불굴의 의지와 의욕, 도전하는 정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에 개그맨 김형곤씨가 주연으로 선보였던 코미디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은 그나마 '회장님'을 풍자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회장님을 향한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는 어떤 단어 어떤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미디어오늘 31일자 이호석 기자의 <삼성, 조선에 대거 진출하다> 온라인기자칼럼에서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인용함으로써, 오늘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파렴치한 보도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지난 11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전 삼성전자 노동자 홍두하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가 노조 탈퇴 조건으로 1억 3500만원을 지급했다며 확인서를 공개했다.

홍씨는 삼성전자 수원공장에서 약 6년 동안 근무했고 지난 2004년 8월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금속노조 가입한 한 달 뒤인 9월 홍씨를 불러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순이익 100억 달러가 넘는 거대기업이 돈으로 노조 조합원을 매수하려 했다는 이 기자회견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와이브로’ 활성화 의무

지난 1월 20일 정부가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3개 통신업체를 와이브로(WiBro) 사업자로 선정함으로써 통신업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와이브로 사업권 경쟁이 일단락됐다. 와이브로란 ‘휴대형 단말기를 이용해 정지 및 이동중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초고속 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로 집안에서 제공되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실외 이동 환경으로 확장한 개념.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요금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손끝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에 성큼 다가서게 될 것이다. 강충구 고려대 교수의 글을 통해 와이브로가 성공하기 위해 넘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들을 알아본다.

와이브로는 산업적으로도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한 조사에 따르면 와이브로는 6년간 생산유발효과 약 18조원, 부가가치 약 7조5000억원, 수출 약 6조3000억원 그리고 일자리는 약 27만개를 창출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반면 장밋빛 청사진과 달리 시장의 포화, 이동통신서비스와의 경쟁, 상용 기술개발 미완료 등 몇 가지 사항으로 인해 활성화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시장에 정착 못하고 퇴출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IT839 전략에서 와이브로를 차세대 성장동력의 하나로 선정했다. 기술과 표준을 선점해 로열티 부담도 적을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시 보다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외국 기술에 종속돼 국내의 성공이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던 기존 이통사업과는 또 다른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와이브로가 침체된 통신시장을 회복시키고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와이브로는 이동전화, 무선랜, DMB 등 기존의 통신·방송 서비스와 결합해 시장상황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나아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저렴한 요금도 가능하게 한다.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저렴한 요금 책정과 더불어 단말기의 보급이 시급하다. 특히 국제 표준화 및 개발 업체들을 지원해 사용자의 취향에 부합하는 다양한 단말기가 개발돼야 한다.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 정책도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하다.

셋째, 서울 및 수도권과 같은 수요 밀집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자 간에 공동망을 구축하고 상호 로밍을 통해 효율적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를 의무화해 중복 투자로 인한 사업자들의 소모적 경쟁과 국가적 자원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와이브로 사업자들의 투자를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의 조기 제공, 이른 기간 내에 유효경쟁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조기투자에 의한 설비경쟁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설비투자의 조기집행은 통신산업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와이브로 사업자들은 서비스의 성공을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서비스 지역의 조기 확보와 단말기의 이동성을 활용한 킬러 인터넷 콘텐츠 확보, 이동시 성능 보장, 다양한 단말기, 국산장비의 조기 상용화 등이 시급하다.

소비자 실익을 위해서는 기존 무선인터넷과는 다른 요금체계가 적용돼야 한다. 이 같은 차별성이 없으면 와이브로는 성공할 수 없고 이는 사업자들의 의지와도 직결된다. 사업권자들은 서비스 제공계획과 설비투자, 운용·유지보수 계획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제 소비자는 와이브로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와 사업자 모두 활성화에 필요한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앞당겨 보여주는 와이브로 서비스를 기대해 본다.

강충구 고려대 전파통신공학과 부교수 ccgkang@korea.ac.kr



잠없는 나라

얼마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불면시간을 가진 나라라는 보고가 있었다. 자정을 넘겨서야 잠에 드는 사람이 60%가 넘는다고 하니 놀라운 결과이다. 사람이 잠을 안자고 기계처럼 일한다면 좋아할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과로사는 한국의 현실을 말해준다.

“내 활력의 근원은 낮잠이다. 낮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뭔가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리라.” 이것은 영국의 처칠이 자신의 잠이 많은 것에 대한 비난에 대해 반박한 말이다. 보통 10 시가 넘어서야 일어나고 수시로 잠을 잔다고 비난받던 처칠은 많은 잠 때문에 오히려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응수한 것이다. 실제로 수면은 모든 생물에게 꼭 필요한 휴식의 방법이다. 그 중에서도 사람인 우리는 일생의 3분의 1 정도를 잠을 자면서 보낸다. 그래서 수면시간을 줄이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더운 나라인 스페인은 점심시간이후에 ‘시에스타’라고 하여 1-2 시간정도 상점등의 문을 닫고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다. 시에스타는 로마시대부터 기록에 나오니 뿌리깊은 전통이다. 그런데 얼마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 문화를 없애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를 없애고 나서 더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었고 문화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밤의 어둠을 밝힐 에너지가 별로 없었던 옛날에는 밤은 정지와 휴식을 의미하는 특별한 영역이었다. 또한 밤은 태초부터 악과 동일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세계 어디서나 야경대를 조직하고 자치 규정을 만들었다. 현대와 달리 조명 기구가 그다지 발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주민의 휴식과 고요를 깨뜨리는 요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동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낮의 길이가 일하는 시간이었다. 농민은 당연히 생산활동 때문에 그랬고 관료들도 6 시경이면 출근해서 해질녘까지 근무하는 것이 통례였다. 농사를 지을 때도 점심 뒤에는 보통 오후 4 시경까지 자는 낮잠으로 한낮 더위를 식혔다. 일하는 시간이 이른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라지만 네 차례의 참을 먹는 시간과 낮잠시간을 빼면, 노동법과 시계가 없던 그 시대였는데도 자율적인 두레관행에 따라 8 시간을 넘기지 않았다.

또한 밤에는 통행금지를 실시하여 활동을 금지시켰다. 특히 포도청과 같은 경찰제도가 완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이 휴식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요즘 우리는 세계 최고의 불면시간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의 수면시간이 다른 나라의 절반 밖에 안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세계에서 3 번째로 늦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우리가 수면시간이 작은 것은 세계최장의 노동시간과 스트레스로 인한 과도한 음주 때문이다. 또한 수면부족은 우울증의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라고 한다.

사람을 기계처럼 보는 사람들에게는 잠을 줄여가며 사는 것이 무척 마음에 들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세계최고의 과로사와 엄청난 사회적 피로현상이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사람이 살고 봐야 뭐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만

화

방

